

## 「진흙」에 나타난 아일랜드 핼러윈\*

최 석 무

### 1. 들어가는 말

핼러윈(Halloween)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졌다. 핼러윈의 역사를 연구한 니콜라스 로저스(Nicholas Rogers)가 주장하듯이 핼러윈은 “수세기에 걸쳐 똑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의미가 고정된 기념일이 아니다”(Rogers 10).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핼러윈은 미국문화의 소산이다. 오늘날 핼러윈은 “미국인다움(Americanness)을 대변하는 주류문화”의 일부가 되었고, 미국적인 핼러윈은 “남미와 유럽, 극동 지방”에 많은 영향을 주어 세계문화를 “동질화 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Rogers 163-64). 그렇지만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핼러윈이 미국에 정착되기까지 핼러윈은 많은 변화를 보인다. 미국 청교도들은 핼러윈을 철저히 배척했고, 19세기 초반까지 미국에서 핼러윈은 기념일 취급을 받지 못했다. 20세기 전후에,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의 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핼러윈은 “가톨릭과 신교도 구분 없이 즐기는 기념일”이 된다(Rogers 50). 그렇지만 미국에서의 핼러윈은 이 풍습이 유래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오늘날 핼러윈 풍속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trick or treat” 풍습은 북미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이 풍습은 핼러윈의 여러 풍습 중에서 아주 늦게 생긴 것이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trick or treat”라는 말은 1927년에 캐나다에서 처음 문자로 기록되었고, 미국에서는 1934년 11월 1일에 처음으로 신문에서 사용되었다. 카와쉬(Samira Kawash)는 “trick or treat”이 “처음 실시된 때와 장소를 찾기는 불가능하지만,” 미동부가 아니라 “인디애나, 워싱턴, 오레곤 같은 서부 지역에서 유래했다”고 말한다(154). 이러한 미국적인 핼러윈이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인가? 하퍼 리(Harper Lee)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는 미국에서 핼러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잘 보여준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앨러바마(Alabama) 주의 메이코움(Maycomb)이라는 상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당시는 “trick or treat” 풍습이 미국적 핼러윈 행사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이다. 그렇지만 소설의 배경인 메이코움에서는 핼러윈 행사가 “전혀 조직화되지 않았다. 말보관소 지붕위에 가벼운 마차를 올리는 것처럼 아이들은 옹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른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하고 싶은 일을 했다”(Lee 336). 어느 해에 행한 심한 장난이 문제가 된다. 한밤중에 두 독신여성이 사는 집의 가구를 모두 들어내어 지하실에 숨겨두는 장난을 하게 되자, 마을 여성들은 그 다음해에 핼러윈 행사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조직한다.

고등학교 강당을 개방해 어른들을 위한 공연을 열기로 했다. 아이들은 사과 입으로 줍기(apple-bobbing), 태피 캔디 만들기(taffy-pulling), 당나귀 꼬리에 편 꽃기 놀이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장 멋진 핼러윈 복장을 만든 아이에게는 25센트의 상금을 주기로 했다. (Lee 338)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직화되어 사회적으로 받아지게 된 형태의 기념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오늘날의 미국식 핼러윈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보급되었다.

미국의 핼러윈이 유래한 영국과 아일랜드는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양상의 핼러윈 풍습을 갖고 있었다. 핼러윈은 2000년 전의 이교도 풍습인 켈트족의 싸우인(Samhain) 풍습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싸우인은 “여름의 끝”이란 의미로 앞으로 겨울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날은 여름과 겨울의 경계에 있는 날로 “정상적인 세계질서가 멈추고, 독특한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날이

다”(Rogers 21). 그리고 싸우인은 이 세상과 저 세상과의 경계선이 얇아지는 시기로 신, 영혼(spirits), 요정, 그리고 죽은 자들이 쉽게 우리 세계에 올 수 있는 날이다. 헬러윈은 이러한 “싸우인이 기독교화된 것이지만 강한 이교도적 근원은 제거되지 않았다”(Rogers 11). 그래서 헬러윈에서도 초자연적인 현상은 여전히 중요하다.

잉글랜드에서는 16세기의 종교개혁과 더불어 국교도의 헬러윈이 가진 종교적 함의에 대한 거부감으로 헬러윈은 쇠퇴기를 맞는다. 헬러윈은 연옥에 있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의식을 중시한다. 잉글랜드 신교들은 “연옥은 교황의 교리이며 운명예정설(predestination)과 양립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기도를 통해 산 자가 죽은 자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책망하고,” “성인들이 인간과 그리스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했다”(Rogers 27). 헬러윈 행사에 오랫동안 사용된 잭-오-랜턴(Jack-o'-lantern)은 잭이 천당도 지옥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것은 신교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종교적 개념이었다. 또한 잉글랜드에서는 11월 5일이 “가이 폭스의 밤”(Guy Fawkes Night)인데 이날이 헬러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잉글랜드에서 헬러윈이 쇠퇴하게 되는 주요인이 된다(Rogers 37). 가톨릭교도인 가이 폭스의 테러를 막은 날을 기념하여 젊은이들은 “가이 폭스의 밤”에 “최고의 기분으로 젊음의 끼를 발산하며 사회변혁의 의식”(Rogers 37)을 행한다. 잉글랜드와 달리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종교개혁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헬러윈 행사를 가졌다. 북미에 헬러윈을 가져온 것도 이들이었다.

『더블린사람들』(Dubliners)의 10번째 이야기인 「진흙」(“Clay”)의 배경인 만성절 전야(Hallow Eve)는 오늘날 헬러윈으로 10월 31일이다. 헬러윈이란 용어는 스코틀랜드 시인인 로버트 번즈(Robert Burns)가 1785년 쓴 “헬러윈”(“Halloween”)이란 시에 의해 널리 알려졌지만, 조이스는 “Hallow Ev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날은 “The Eve of All Saints’ Day”라고도 한다. 10월 31일부터 3일간은 헬러윈과 만성절, “위령의 날”(All Souls’ Day)이 연달아 있는 날로 “Allhallowtide” 또는 “Hallowtide”라고 부르고, “성자와 최근에 죽은 이를 기리는” 날로 흔히 알려져 있다(Rogers 11). 아일랜드에서 헬러윈의 의미는 헬러윈을 위령의 날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달랐다. 이 두 날을 별개의 날로 생각하는 경우에 헬러윈은 이교도의 풍습인 싸우인의 연장으로 이날은 여름과 겨울의 경계선에 있

는 날로 “시골집은 초자연적인 경외감” 휩싸여 “예언과 징조”가 가능한 날이라 믿었다(Rogers 40). 반면에 위령의 날은 “죽은 자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할 수 있는 밤”(Rogers 40)이다. 그러나 아일랜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두 날을 구분하지 않고 “10월 31일과 11월 2일 사이”에 헬러윈 날로 기념하였다(Rogers 40). 이 때 헬러윈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연옥에 있는 죽은 자가 이 세상을 찾는 날이다. 조이스는 후자의 헬러윈 풍습을 「진흙」에서 재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진흙」이 헬러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조이스가 20세기 전환기의 아일랜드 헬러윈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진흙」에 관한 많은 논문이 출판되었다.<sup>1)</sup> 그 중에서 아일랜드 민담이나 전통문화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연구한 오웬스(Coilin Owens)의 연구는 흥미롭다. 오웬스는 「진흙」에서 조이스는 “아일랜드 전통문화 요소를 현대 문학 작품을 위해 사용했고, 아일랜드의 사례가 20세기 유럽의 주목을 받게 했다”고 말한다(“Clay’ (2),” 610). 오웬스는 그의 다른 논문 「「진흙」 (1): 아일랜드 전통 문화」(“Clay’ (1): Irish Folklore”)에서 헬러윈 관점에서 「진흙」을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다. 오웬스는 “제임스 프레이저 경”(Sir James Frazer)의 해석에 기초하여 헬러윈을 분석하였다(338). 그러나 프레이저의 해석은 1890년에 나온 것으로 니콜라스 로저스는 그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헬러윈을 “위령의 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19). 프랑슈아 라로크(François Laroque)는 헬러윈 풍습의 관점에서 「진흙」을 연구하여 아일랜드 풍습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로 로저스가 주장한 헬러윈의 역사와 문화적 관점에서 「진흙」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아일랜드의 종교적 분열이 조이스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최근 국내에서 「진흙」을 연구한 논문이 잇달아 발표되어 이 작품이 여전히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소영은 「마비된 영혼과 욕망의 언어: 조이스의 「진흙」에 구사된 이중서술전략」에서 서술전략 관점에서, 최석무는 「조이스의 전래동화 다시 쓰기: 「진흙」과 「신데렐라」에서 전래동화를 다시 쓴 이야기로, 이인기는 「진흙」과 ‘상처 입은 치유자’ 마리아: 조이스의 실존주의적 인간이해」에서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임경규는 「깔끔한 거울: 제임스 조이스의 「진흙」에서 알레고리로 이 작품을 읽고 있다.

## 11. 헬러윈 풍습

「진흙」은 세탁소를 묘사하는 다음 장면으로 시작된다.

감독관이 여자들의 저녁식사가 끝나자마자 외출해도 좋다고 해서 마리아는 저녁외출을 고대했다. 부엌은 깔끔히 청소되어 요리사는 커다란 구리 보일러에 네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불은 밝게 잘 타고 있었고 보조 테이 불위에 밤브랙 빵 4개가 놓여 있었다. (D 95)

여기서 불에 대한 언급은 이 단락에 어울리지 않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부엌을 잘 정돈해두고, 밤브랙 빵을 먹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마리아가 일을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진흙」 바로 앞 작품인 「짝패들」(“Counterparts”)은 톰(Tom)이 불을 꺼뜨려 아버지인 패링턴(Farrington)에게 야단을 맞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 장면을 통해 조이스는 『더블린사람들』의 각 단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한 이 작품을 헬러윈 관점에서 읽을 수 있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헬러윈에서 불은 중요하다. 이것은 싸우인 풍습에서 시작된 것으로 켈트족들은 모닥불을 피워 악령(evil spirit)을 몰아내고, 겨울이 상징하는 어둠과 부패에서 살아남고자 하였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켈트족의 풍습을 기독교화 하여, “악마(devil)를 물리치기 위해 불을 지폈다”(Rosinsky 7). 오늘날에는 모닥불이 아니라 잭-오-랜턴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잭-오-랜턴의 불은 죽은 자의 영혼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뿐만 아니라 악마를 쫓아 버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헬러윈에 피우는 불은 “특히 미래의 남편이나 아내를 상상해 보게 고무”하는 역할을 한다. “잔불에 머리카락을 잘라 올려놓으면 미래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자 예측 게임을 하였다(“Ten Irish”). 이 단편소설에서 결혼을 예측하는 게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첫 부분에 등장하는 불도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오늘날 북미의 대표적인 헬러윈 풍습인 “trick or treat”은 아이들이 이웃집을 차례로 방문해 “trick or treat”라고 말하면서 캔디나 사탕을 요구하는 풍습이다. “trick or treat”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꿀탕을 먹지 않으려면 대접을 해라”는 의미이다. 마고 노리스(Margot Norris)는 마리아가 아이들의 요구에 이끌려 미래

예측 게임에 참여해 진흙을 선택하게 되는 장면을 “trick or treat와 같은 보복”의 예라고 주장한다(150). “trick or treat”가 북미에서 1920년대에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라는 점에서 노리스의 주장은 오늘날 북미 비평가의 관점에서 쓴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이 사운 케이크가 없어지자 아이들이 몰래 먹었는지 의심한다. 노리스는 아이들이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앙갚음을 하기 위해 게임을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사실 심한 장난을 치는 모습은 아일랜드 헬러윈의 오래된 풍습이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헬러윈에 창궐하는 정령 중에서 악한 정령을 흉내 내어 “이웃에게 장난을 치거나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혹한 벌을 가하였다”(Rogers 42). 이런 풍습의 관점에서 볼 때, 케이크가 없어진 것도 마리아의 의심대로 아이들의 소행일 수 있다. 아이들은 마리아에 대해 품은 평소의 악감정 때문에 이런 행동을 통해 앙갚음을 하고자 했을 수 있다. 그리고 진흙을 선택하게 하는 게임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거둬 절망감을 안기고자 했을 수도 있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이민자가 19세기에 북미에 가져간 헬러윈 풍습도 이러한 면이 강조되어 사회문제화 된다. 이에 “trick or treat”라는 새로운 헬러윈 풍습을 의도적으로 고안하여 “trick”이 아니라 “treat”를 중시하는 놀이문화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trick or treat”와 같은 풍습이 아일랜드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풍습이 “의식화된 구걸의 변형된 형태”의 하나인 소울링(souling)에서 왔다고 말한다. 소울링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는 대가로 구호품이나 소울 케이크(soul cake)를 요구하는 풍습”이다(Kawash 152-53).

20세기 전환기 아일랜드에서도 아이들이 다른 집을 방문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때 캔디나 사탕이 아니라 “사과와 너트”가 주어졌다(Rogers 41). 마리아는 조우의 집에 “사과와 너트가 많이 있을 것”(D 98)이라 확신하는데 이는 당대의 아일랜드 헬러윈 풍습을 잘 보여준다. 브리짓 헤거티(Bridget Haggerty)에 따르면 사과와 너트는 오늘날 아일랜드 헬러윈 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아이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헬러윈 파티를 도와주세요! 사과나 너트요?”(Help the Hallowe'en Party! Any apples or nuts?) 라고 외친다고 한다(Haggerty, “Part 1”). 사과와 너트를 헬러윈 파티에 사용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켈트신화에 따르면, 사과는 “저승이나 불멸”(MacLeod 61), 너트의 일종인 헤이즐너트(hazelnut)는 “신의 지혜”를 상징한다(MacLeod 107). 그렇지만 아일랜드 다른 지역에서는 사과와 너트뿐만 아니라 케이크나 동전을 요구하는 등 헬러윈에 요구하는 것은 지역마다

달랐다.

헬러윈은 운명을 예측하는 날로 흔히 알려져 있다. 이날 초자연적인 힘이 강렬하게 작동하기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믿음은 싸우인 풍습에서 유래하였다. 싸우인은 여름이 끝나는 날이기에 길고 추운 겨울을 대비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진흙」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헬러윈에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풍습을 잘 보여준다. 사과와 너트는 헬러윈 날에 먹는 대표적 음식이지만, 헬러윈 게임에서 결혼을 예측하는 용도로 흔히 사용되었다. 따라서 마리아가 조우의 집에 사과와 너트가 많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실제로 조우의 집에 너트가 있는데, 조우는 “호두까기가 없어서 마리아가 어떻게 너트를 까냐고”(D 100) 불평을 늘어놓는다. 여기서 조우는 너트의 용도를 먹는 것에 국한하는데 이는 헬러윈에는 너트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잊으려 한 결과일 것이다. 너트는 흔히 이성과의 관계를 예측하는데 사용되었다. 너트를 불에 올려놓고 너트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 예측하는 게임을 하였다. 너트뿐만 아니라 사과도 헬러윈 게임에서 자주 사용되었지만, 조우의 집에 사과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일랜드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사과, 사과껍질, 그리고 사과 씨를 통해 남녀관계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였다”(Alison Richards). 헬러윈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아일랜드 풍습을 따라, 아일랜드 사람들은 사과와 너트 외에도 “콜캐논(Colcannon), 사과 케이크, 밤브랙 빵(barnbrack)” 등을 먹었다(Mahon 138).

사과와 너트를 이용해 결혼을 예측하는 게임처럼 “집안이나 집근처에서 행해지는 게임은 젊은 여인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Rogers 43). 「진흙」에서 “두 명의 이웃집 여자가 헬러윈 게임을 준비”(D 100-01)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들이 게임을 주도한다. 잉거솔(Earl G. Ingersoll)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만” 그 게임에 참여한다고 말하지만(78), 조우의 아들인 앨피(Alphy)가 그 게임에서 배제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그는 게임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D 101)중의 한명으로 묘사되면서 여자애들이 하는 게임에 목소리 없이 참여했을 수도 있다. 앨피는 이 작품에서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 집단적으로 “아이들”이라고 줄곧 묘사된다. 게임은 주로 “연애나 결혼 예측”(Rogers 43)에 관한 것이지만, 죽음을 예측하는 것도 헬러윈 게임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죽음예측은 “헬러윈이 오랫동안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에 “감자기근의 결과로 지속”

되었다(Rogers 43). 따라서 게임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진흙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조우의 아내는 화를 내지만, 아일랜드 풍습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이상하지 않다. 이 게임에서 반지는 결혼을 상징한다. 반지를 통해 결혼을 예측하는 게임은 밤브랙 빵을 먹는 이전 장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리지 플레밍은 마리아가 반지를 찾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플레밍은 여러 해 동안 만성절에 그 말을 했지만, 마리아는 웃으면서 반지도 남자도 원치 않는다고만 말했다. 그녀는 웃을 때 회색빛 초록색 눈이 실망감과 수줍음으로 빛났고 코끝이 턱 끝에 거의 닿을듯했다. (D 97)

아일랜드에서 밤브랙 빵은 헬러윈 게임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 빵 속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 찾는 게임을 통해 “미래의 결혼이나 경제적 지위” 등을 예측하려 했다. 예를 들면 “반지는 곧 결혼함”을, “콩은 그 해에는 결혼하지 못함”을, “조그마한 동전은 부자가 됨”을, “천 조각은 가난하게 됨”을 상징했다(Lisa Marie Griffith). 이와 같은 헬러윈 풍습에 따르면 밤브랙 빵에 여러 가지 물건을 숨겨두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임을 하였을 텐데 조이스는 마리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빵 속에 반지를 넣어 그 게임을 했는지도 불확실하다.

「진흙」 시작부에 제시된 불이 마리아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마리아의 다른 사소한 행동이 미래를 예측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웬스는 다음 3가지 장면을 통해 마리아가 결혼예측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마리아가 헬러윈에 거울을 보는데 이는 거울 속에서 “남편을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으로 행위”이다. 마리아는 침대위에 옷을 펼쳐 놓는데 이렇게 하면 “미래의 남편이 옷을 뒤집는 꿈을 꾸게 된다.” 그리고 마리아가 헬러윈에 길을 나서는데 이때 “듣게 되는 첫 번째 이름이 그녀의 남편의 이름이 될 것이다”(Owens 342). 그러나 이러한 장면을 통해 미래의 남편을 예측하는 풍습은 아일랜드 특정지역에 있었지만 지역마다 달라 보편적인 아일랜드 헬러윈 풍습이라 하기 힘들다.



### III. 헬러윈 귀신으로서의 마리아

헬러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진흙」은 전형적인 헬러윈 이야기를 숨겨 놓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 작품은 마리아가 헬러윈에 조우의 집을 방문하는 이야기인데, 이를 마리아가 귀신이 되어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집을 방문하는 전형적인 헬러윈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오웬스는 “짜우인 날에 세탁소에서 더블린을 통과해도넬리가로 가는 여정은 상징적으로 사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친척집으로 가는 여정을 대변한다”고 말한다(341). 오웬스는 “세탁소에서의 마리아의 삶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341)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마리아를 헬러윈 귀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죽은 자와 같은 삶(death in life)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피크(C. H. Peake)는 “헛되이 감정적 유대를 찾고 있는 마리아”의 삶을 “사후(posthumous)의 삶”이라 정의 내린다(3-4). 커쉬너(R. B. Kershner)는 마리아의 반복으로 가득한 삶을 프로이트 심리학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그녀의 반복적인 성향은 죽음에 대한 충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진단한다(108). 캐리와 론퀴스트(Gabrielle Carey & Barbara Lonnquist)는 “진흙」이 「에블린」(“Eveline”)에서의 ‘먼지’의 연장으로 죽은 자와 같은 삶의 원형적 이미지로 작용한다”고 말하면서 마리아의 삶을 정의하고 있다(224). 그밖에도 조이스는 마리아를 죽은 자와 연관시키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하고 있다. 전차 안에서 “밭갈이 땅바닥에 닿을락 말락”(D 97-98)하는 모습은 마리아가 키가 작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녀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존재가 아님을 상징한다. 마리아가 아이들이 하는 헬러윈 게임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진흙을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예이다. 조우의 아내는 진흙을 게임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아이들을 야단치지만, 그렇다고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마리아가 그 게임을 두 번째 하였을 때 그녀가 성경책을 선택하자, 조우의 아내는 마리아가 올해 안에 수녀가 되어 수도원에 가게 될 것이라 믿는다. 마리아는 이런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삶을 살아간다. 조이스는 이런 그녀를 정신적으로 죽은 자로 묘사한다.

마리아는 조우형제와 같이 살 때는 “진짜 엄마”(D 96)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조우형제를 정성껏 키웠다. 마리아는 조우와 엘피의 사이가 틀어진 후 신교도가 윤락여성의 갱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일하게 된다. 이 세탁소는 연

옥과 같은 곳으로 묘사된다. 세탁소의 “불”(D 95)은 연옥에 있는 불처럼 모든 죄를 불태워 버리는 정화의 불의 역할을 한다. Lopičić에 따르면 『햄릿』(*Hamlet*)에서 햄릿왕은 “전형적인 연옥”에 있는 인물로 죄를 불에 태워서 씻고 있다고 주장한다(159-60).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마리아 역시 햄릿왕처럼 천국에 가기 전에 연옥과 같은 곳에서 불로 죄를 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탁소라는 공간적 배경은 이러한 의미를 배가한다. 연옥의 불뿐만 아니라 세탁소 자체가 씻는다는 의미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옥의 의미를 담고자 하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적절하다. 조이스는 이러한 의미를 동시에 담고자 세탁소 이름이 <더블린 등불>(Dublin by Lamplight)인 실제 세탁소를 배경으로 설정하였다. 이 세탁소는 연옥으로 ‘불’로 더러움을 씻는 곳이다. 이 세탁소가 타락한 여성의 갱생을 위해 운영되었다는 사실 또한 연옥의 의미와 부합되는 적절한 배경이다.

연옥에 있는 마리아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그녀는 “평화의 진정한 구현자”(D 95)라는 말을 듣는데, 현실에선 “소심하면서 작은 용모의 나이 많은 그녀가 재치와 힘이 있는 중재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Beck 206). 연옥에서 그녀는 다른 여성과 달리 죄에서 해방된 여성으로 헬러윈 날에 감독원장(matron)의 허락을 받아 특별 외출을 나간다. 작품의 배경인 만성절 전야는 연옥에 있는 사자들에게 특별한 날이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된 20세기 전환기 아일랜드에서는 “사자가 헬러윈이나 그 다음 날에 자신이 살던 집에 되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다”(Rogers 27). 특정한 집을 방문하는 귀신은 “죽은 친척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방문해 살아 있을 때 자행된 악행을 바로잡거나 친족의 연대감을 강화하려 한다”고 생각했다(Muir 51). 마리아는 조우에게 앨피와 화해하라고 권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친족의 연대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우의 집을 방문하지만 조우의 거부로 실패로 끝이 난다.

아일랜드에선 헬러윈 날에 죽은 이의 영혼은 환대를 기대하며 자기 집에 다시 방문한다고 믿는다. 조우의 가족들은 마리아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우의 집에 도착하자, “오, 마리아가 왔네!”라고 모두가 말한다”(D 99). 마리아가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자, 도넬리 부인(Mrs. Donnelly)은 “아이들에게 ‘고마워요, 마리아’라고 말하게 한다”(D 99). 조우와 도넬리 부인은 마리아에게 너트, 흑맥주, 포트와인 등을 먹고 마시라고 지속적으로 말한다. 화롯가는 환대의 상징이다. 조우는 마리아가 “불 옆에 앉게 하고,” “불 옆에 앉아서 옛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 한

다”(D 100). 그리고 도넬리 부인은 마리아가 노래할 때, 아이들을 “조용히 하게 만들고 마리아의 노래를 듣게 한다”(D 102). 그녀는 마리아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마리아가 진정으로 환대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우네 가족이 마리아를 극진히 환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의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노리스가 주장하듯이, 마리아에게 노래를 하라고 한 것은 마리아의 노래가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녀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153). 조우네 가족은 자신들의 본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겉으로는 마리아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저녁을 같이 보내는 것도 내키지 않아한다. 그들이 일종의 가면을 쓴 것은 헬러윈 날에 적합하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오랫동안 헬러윈 날에 “마녀, 귀신 또는 도깨비”로 특수한 분장을 했다. 이날은 “산자와 죽은 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밤이기에 악한 영혼이 나타나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려한다고 믿었다.” 이에 “영적 세계의 일원으로 보이게 하는 가면”을 씌으로써 귀신이 동료로 착각하게 만들어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Haggerty, “Part 2”). 콘테(Prince Sorie Conteh)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만성절까지 이승을 배회”하는데 헬러윈은 “사자가 저승으로 가기 전에 적에게 복수할 마지막 기회”이기에 사람들은 마스크나 분장을 하여 이 영혼을 피하려 했다고 말한다(132). 조이스는 마리아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 마녀와 같은 존재임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마리아를 묘사할 때, “그녀의 코끝이 턱 끝에 닿을랑 말랑 했다”(D 97, 101)라는 똑같은 표현이 세 번이나 등장한다. 그리고 시작부분부터 마리아의 “너무나 작은 몸과 매우 긴 코와 매우 긴 턱”(D 95)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그녀의 말이나 생각보다 그녀의 몸이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암시한다(Gibbons 161). 그녀의 기이한 몸을 반복해서 서술하면서 조이스는 독자로 하여금 이 사실에 특별히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그녀가 마녀와 같은 존재임을 암시하는 또 다른 증거는 그녀가 일하는 세탁소에 있는 “큰 구리 보일러”(D 95)이다. 이 보일러는 『한젤과 그레텔』(*Hansel and Gretel*)에서처럼 마녀가 아이들을 삶는데 사용하는 솥처럼 보인다. 또한 마리아가 “온실에서 키우는 식물은 전통적으로 마법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고사리는 “악마의 식물”로 불린다(Laroque 48).

마리아가 전차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나이 많은 신사”를 제외하고 “젊은이들

은 그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D 98). 이 장면은 젊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헬러원적 관점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녀는 마녀이며 귀신인 초자연적 존재이다. 그러면 노신사는 그녀를 어떻게 알아볼까? 노신사는 술을 마신 상태이기에 정상이 아니다. 그들의 만남은 비정상인과의 만남이기에 가능할 수 있다. 조이스는 마리아와 신사를 같은 맥락에서 묘사하면서 유사성을 강조한다. 마리아가 입은 옷은 “오래된 갈색 방수복”(D 97)이고 노신사는 “갈색의 딱딱한 모자”(D 98)를 쓰고 있다. 그들이 갈색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조이스는 마리아의 방수복과 노신사의 모자만 언급한다. 갈색은 이 작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갈색은 “정원에 있는 어떤 것”(D 101)이고 이 작품의 제목인 진흙의 색깔이고, 이 진흙은 죽음을 상징한다. 노신사는 전차에 있는 “젊은이들”과 달리 나이가 많다는 점에서 죽음과 가까이 있는 인물이다. 노신사가 죽음과 연결되는 것은 “대령처럼 보이는 신사”(D 98)라는 그의 정체성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나이 먹은 대령처럼 보이기에 신교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19세기 후반기 “거의 대부분의 장교는 앵글로 아이리시 신교도 토지소유 계층 출신”이기 때문이다(Jeffery 105). 또한 “대령처럼 보이는 신사”는 “말은 가진 신사”처럼 아일랜드 사람들이 신교도를 지칭할 때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다(Torchiana 153-54). 세기말 신교도는 아일랜드 지배세력의 위치를 상실하고 있었기에 흔히 죽어가는 계층으로 묘사되었다. 그들의 관심사도 죽어가는 게일릭 문화였다. 이글턴(Terry Eagleton)은 “저물어 가는 앵글로 아이리시 족속은 꺼져가는 게일릭 문화의 잔불을 뒤적이면서 마지막으로 살 기회를 모색했다”고 말하면서 신교도를 죽음과 연결 짓는다(250). 조이스는 마리아와 노신사의 만남을 죽은 자들의 관점에서 묘사하여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 단편소설에서 신교도가 여러 명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 마리아가 일하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감독관”(matron), “부감독관”(sub-matron), 그리고 “두 여자관리”(Board ladies)가 있다. 그들에게 헬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들은 “여자들의 저녁식사”(the women’s tea)(D 95)에 참석하지 않는다. 여기서 ‘여자들’은 “여자들의 방”(the women’s room)(D 96)을 공유하는 과거 율락여성으로 신교도 관리인들은 이들과 거리를 둔다. 특히 이날은 헬러원이기에 특히 그러하다. 그들은 가톨릭교도들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밤브랙 빵에서 반지를 찾는 헬러원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국 신교도처럼 헬러윈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마리아는 세탁소에서 “한 가지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벽에 걸려있는 신교 팸플릿이다”(D 96). 이 팸플릿이 항상 있는지 아니면 헬러윈 기간에만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 팸플릿은 헬러윈 날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신교도에게 헬러윈 날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일(Reformation Day)이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95개조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종교개혁을 촉발했다. 그는 헬러윈인 이날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잘못된 성인숭배를 조장하고, 최후의 심판과 연옥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려한 두 개의 종교적 기념일에 대적하려 했다”(Justin Holcomb). 신교도들은 이날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로 삼고 신교 팸플릿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한다. 오늘날에도 신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기념하기를 요구한다. 그동안 헬러윈 풍습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헬러윈 풍습 기저에 깔려있는 이교도적 전통과 가톨릭적 세계관을 신교도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sup>2)</sup>

#### IV. 나가는 말

이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진흙」을 통해서 20세기 전환기 아일랜드에서 헬러윈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조이스는 헬러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루면서 두 가지 다른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게임처럼 종교적인 의미가 없는 내용은 쉽게 알 수 있도록 묘사한다. 반면에 귀신의 방문과 같은 초자연적인 내용은 은밀히 제시한다. 마리아가 정신적으로 죽은 자와 같기에 그녀를 귀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헬러윈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는 파악하기 힘들다. 조이스는 헬러윈을 제시하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헬러윈의 의미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헬러윈이 “죽음이 아니라 인생을 기념하는 날”(Rogers 46)로 점차 바뀌고 있는 시대에 귀신의 방문과 같은 내용을 표면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했을

2) 신교도 목회자 교육기관인 “세 천년 목회”(Third Millennium Ministries)에서는 10월 31일을 헬러윈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정이 모이는 날”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헬러윈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날”이라고 주장한다(Nally).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갈등관계에 있었던 신교도와 구교도가 독립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힘을 합치려고 하던 시기에 가톨릭 교리를 담고 있는 헬러윈 풍습을 표면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조이스에게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 교리에 입각한 세계관을 작품에 표면화하면 위대한 예술작품이 표방하는 문학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각각의 헬러윈 풍습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진흙」은 20세기 전환기 아일랜드 헬러윈 풍습의 여러 양상을 잘 보여준다. 조이스 작품이 헬러윈 풍습을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작가가 여기저기 숨겨놓은 헬러윈을 상기시키는 장면 때문이다. 그러나 조이스가 20세기 전환기 아일랜드 헬러윈 풍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조이스 작품을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 국한된 이야기로 읽을 필요는 없다. 조이스의 작품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성을 담고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읽는 것이 가능하다. 아일랜드의 풍습은 조이스가 보편성을 확보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조이스는 아서 파워(Arthur Power)에게 “세계적인(international) 작가”가 되려면, “먼저 민족적”(national)이어야 하고, “세세한 것(the particular)에 보편적인 것(the universal)”이 있다고 말한다(64-65). 「진흙」에서 조이스는 세세한 아일랜드 풍습을 다루고 있지만, 이를 토대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 있는 독자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공간 또한 포함하고 있다.

(고려대)

## 인용문헌

- 박소영. 「마비된 영혼과 욕망의 언어: 조이스의 「진흙」에 구사된 이중서술전략」. 『제임스조이스저널』, 22권 2호, 2016, pp. 91-111.
- 이인기. 「진흙」과 ‘상처 입은 치유자’ 마리아: 조이스의 실존주의적 인간이해」. 『제임스조이스저널』, 24권 1호, 2018, pp. 131-51.
- 임경규. 「깔끔한 거울: 제임스 조이스의 「진흙」」. 『제임스조이스저널』, 24권 1호, 2018, pp. 153-75.
- 최석무. 「조이스의 전래동화 다시 쓰기: 「진흙」과 「신데렐라」」. 『제임스조이스저널』, 23권 1호, 2017, pp. 127-45.
- Beck, J. Warren. *Joyce's Dubliners: Substance, Vision, and Art*. Duke UP, 1969.
- Carey, Gabrielle and Barbara Lonquist. “Working with Clay.” *Collaborative Dubliners: Joyce in Dialogue*, edited by Vicki Mahaffey, Syracuse UP, 2012, pp. 210-37.
- Conteh, Prince Sorie. *Traditionalists, Muslims, and Christians in Africa: Interreligious Encounters and Dialogue*. Cambria Press, 2009.
- Eagleton, Terry. *Heathcliff and the Great Hunger: Studies in Irish Culture*. Verso, 1995.
- Gibbons, Luke. ““Have you No Homes to Go to?":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Paralysis.” *Semicolonial Joyce*, edited by Derek Attridge and Marjorie Howes, Cambridge UP, 2000, pp. 150-71.
- Griffith, Lisa Marie. “Traditional Halloween Barmbrack.” *Pue's Occurrences: The Irish History Blog*, pueoccurrences.wordpress.com/2011/10/18/traditional-irish-halloween-barmbrack/.
- Haggerty, Bridget. “An Irish Hallowe'en—Part 1.” *Irish Culture and Customs*, 4 March, 2011, www.irishcultureandcustoms.com/ACalend/Halloween1.html.
- . “An Irish Hallowe'en—Part 2.” *Irish Culture and Customs*, 4 March, 2011, www.irishcultureandcustoms.com/ACalend/Halloween2.html.
- Holcomb, Justin. “The Connection Between Halloween & Reformation Day.” *Christianity.com*, 2018, www.christianity.com/christian-life/art-and-culture/

the-connection-between-halloween-reformation-day.html.

- Ingersoll, Earl G. *Engendered Trope in Joyce's Dubliners*. Southern Illinois UP, 1996.
- Jeffery, Keith. "The Irish Military Tradition and the British Empire." *'An Irish Empire'?: Aspects of Ireland and the British Empire*, edited by Keith Jeffery, Manchester UP, 1999, pp. 94-122.
- Joyce, James. *Dubliners*. Penguin Books, 2000. Abbreviated as *D*.
- Kawash, Samira. "Gangsters, Pranksters, and the Invention of Trick-or-Treating, 1930-1960." *American Journal of Play*, vol. 4, no. 2, Fall 2011, pp. 150-75.
- Kershner, R. B. *Joyce, Bakhtin, and Popular Literature: Chronicles of Disorder*. The U of North Carolina P, 1989.
- Laroque, François. "Hallowe'en Customs in 'Clay': a Study of James Joyce's Use of Folklore in *Dubliners*." *Cahiers Victoriens et Edouardiens*. no. 14, Oct. 1981, pp. 47-56.
- Lee, Harper. *To Kill a Mockingbird*. Grand Central Publishing, 2010.
- Lopičić, Vesna. "The Stage as Purgatory: Shakespearean Moral Dilemmas." *Belgrad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tudies*, vol. 6, 2014, pp. 157-73.
- MacLeod, Sharon Paice. *Celtic Myth and Religion*. McFarland & Company, 2012.
- Mahon, Bríd. *Land of Milk and Honey: The Story of Traditional Irish Food & Drink*. Poolbeg Press, 1991.
- Muir, Edward. *Ritual in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UP, 1997.
- Nally, Joseph R. Jr. "Reformation Day vs. Halloween?" *Third Millennium Ministries*, [thirdmill.org/answers/answer.asp/file/46742](http://thirdmill.org/answers/answer.asp/file/46742).
- Norris, Margot. *Suspicious Readings of Joyce's Dubliners*. U of Pennsylvania P, 2003.
- Owens, Coliin. "'Clay' (1): Irish Folklore," *JJQ*, vol. 27, no. 2, Winter 1990, pp. 337-52.
- . "'Clay' (2): The Myth of Irish Sovereignty," *JJQ*, vol. 27, no. 3, Spring 1990, pp. 603-14.



- Peake, C. H.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UP, 1977.
- Power, Arthur. *From the Old Waterford House*. Mellifont, 1944.
- Richards, Alison. “The Secret, Steamy History of Halloween Apples.” *Food History & Culture*, 2013, [www.npr.org/sections/thesalt/2013/10/30/241924745/the-secret-steamy-history-of-halloween-apples](http://www.npr.org/sections/thesalt/2013/10/30/241924745/the-secret-steamy-history-of-halloween-apples).
- Rogers, Nicholas. *Halloween: From Pagan Ritual to Party Night*. Oxford UP, 2002.
- Rosinsky, Natalie M. *Halloween*. Compass Point Books, 2002.
- “Ten Irish Traditions for Halloween.” *Celtic Life International*, 2018, [celticlife.com/ten-irish-traditions-for-halloween/](http://celticlife.com/ten-irish-traditions-for-halloween/).
- Torchiana, Donald T. *Backgrounds for Joyce’s Dubliners*. Allen & Unwin, 1986.

## Abstract

### “Clay” and an Irish Halloween

Seokmoo Choi

It is widely believed that Halloween originated from the ancient Celtic pagan festival of *Samhain*, which celebrated the end of summer and the beginning of winter. *Samhain* or Halloween was considered the most supernatural time of the year—a time when the boundary between this world and the Otherworld blurred, allowing otherworldly entities to enter into the lands of the living. As implied in *To Kill a Mockingbird*, the meaning of Halloween has changed over time and has varied from place to place. In “Clay,” James Joyce demonstrates how Irish people at the turn of the century celebrated All Hallows’ Eve, the traditional name for Halloween. Interestingly, Joyce depicts an Irish Halloween in two different ways. He overtly demonstrates how Irish people celebrate the day, playing tricks upon people and enjoying fortune-telling games. On the other hand, Joyce covertly presents a Halloween ghost story that is not easy to identify. Since Maria is living a death in life, she may be seen as a ghost who visits Joe’s home to enforce the obligations of kinship. From Joyce’s way of presenting an Irish Halloween, it is assumed that the meaning of Halloween has significantly changed during Joyce’s time and that the people would like to celebrate life, not death, on Halloween. On top of that, Joyce did not want to highlight Catholic doctrines embodied in a typical Halloween ghost story as he believed that Protestants and Catholics should work together to build an independent Ireland. By conveying universal values rather than Catholic ones, Joyce also liked to appeal to wide readers around the world.

■ **Key words** : James Joyce, *Dubliners*, “Clay,” Halloween, Ireland, Samhain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진흙」, 할러윈, 아일랜드, 싸우인)

논문접수: 2018년 11월 14일

논문심사: 2018년 12월 1일

게재확정: 2018년 12월 8일